

## 중세 시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How did Citizens live in the Medieval Ages?

신철희 \_서울대학교

Shin, Chul Hee \_Seoul National University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지칭하는 개념들은 다양하다. 우리는 대부분 한 명의 주민, 국민, 인민, 또는 시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 중에서 굴곡이 많은 현대사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것이 바로 시민이다.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해왔고, 또 투쟁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근대 시민 개념은 직접적으로 프랑스어 ‘citoyen’으로부터 기원하지만, 사실 시민과 관련된 개념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의 ‘polites’나 고대 로마의 ‘civis’도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더불어서 그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 짓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민 개념의 원형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 시민 개념과 구별되는 고대 시민 개념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시민이 아닌 사람들과의 차별을 나타내는 특권적인 개념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권적 시민 개념이 보다 평등하고 보편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다.

그런데 시민 개념의 역사에서 비교적 간과되었던 시기가 바로 중세였다. 민(民)의 정치사를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필자가 자료의 부족과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항상 궁금해 하던 시기가 바로 중세였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

\* 크누트 솔츠. 2013. 박홍식 역. 『중세 유럽의 코뮌 운동과 시민의 형성』. 서울: 길 에 대한 서평

공금증을 풀어 줄 만한 좋은 책을 만나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중세사를 연구하고 가르쳐 온 크누트 솔츠(Knut Schulz) 교수의 책이 『중세 유럽의 코뮌 운동과 시민의 형성』<sup>1)</sup>이란 이름으로 번역되어서 나온 것이다.

솔츠는 책에서 중세 성기인 11-13세기에 유럽의 중서부 지역의 시민들이 인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치를 추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대표성을 가지고 내적으로는 자율적 통제를 갖춘 공동체, 즉 코뮌(commune)을 형성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 의식이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솔츠는 기존의 코뮌 붕기 이론과는 달리 이러한 현상이 오랜 시간 동안 진화적 과정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코뮌 운동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솔츠는 기존에 논의되던 길드 이론, 하느님의 평화이론, 그리고 재판공동체, 방어 공동체, 마르크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형성 이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는 특정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사례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솔츠는 책에서 11세기 초중반에 밀라노를 필두로 13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각 지역에서 전개된 코뮌운동을 북부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라인강 유역, 그리고 북서 유럽의 도시들을 9개의 권역으로 세분해서 설명한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섰던 밀라노에서는 기존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개방성’이 두드러졌고, 프랑스 북부 도시들인 캉브레와 랑에서는 서임권 투쟁과 종교적 자극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리고 독일의 보름스와 쾰른은 서임권 투쟁의 핵심 지역으로서 특히 장원법으로부터 개인이 해방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교황의 도시인 로마는 교황의 지배권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심했고, 독일의 트리어와 마인츠의 코뮌운동에서는 귀족층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지역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자결에 대한 의식이 특히 강했다. 런던은 대륙의 도시들보다 시기적으로 늦었고, 특히 상인 길드의 발전이 큰 영향을 미

1) 원제는 *Denn sie lieben die Freiheit so sehr...: kommunal Aufstände und Entstehung des europäischen Bürgertums im Hochmittelalter*(자유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중세 성기(盛期) 코뮌 붕기와 유럽시민의 형성) 이다.

쳤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마르세유는 가장 늦게 코뮌이 형성되었지만 길고 격렬한 투쟁이 지속되었다.

위에서 간략하게나마 정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슐츠의 책의 장점은 중세의 각 도시들에서 코뮌 운동이 발생하고 시민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는 코뮌 운동이 시민 계층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봉사귀족 같은 특권층도 관여했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빼놓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책의 원제(“자유를 너무나 사랑했기에...”)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그는 코뮌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동인은 시민들의 자유와 자치에 대한 열망이라고 분석하고,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새로운 시민 계층의 기원을 여기에서 찾는다.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아쉬운 점은 저자가 11-13세기에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시민이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세력으로 성장한 것을 서양세계, 그것도 오늘날의 서유럽에 국한된 특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당연히 메카와 같은 중동의 도시와 동아시아의 도시들 뿐 아니라 노브고로드 같은 북동부 유럽이나 에스파냐와 같은 남부 유럽의 도시들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민 형성과 그 기반이 되는 코뮌 운동을 서유럽에 국한된 현상으로 보는 입장은 저자가 이 분야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베버(Max Weber)의 시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더 말하면, 저자는 시민 의식의 형성과 코뮌 운동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자치에 대한 열망이 마치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책이 철학이 아니라 역사 분야의 책이란 점을 감안할 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번역에 대한 느낌을 언급하고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최근에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역자의 부정확하고 매끄럽지 못한 번역으로 독자들에게 혼란과 답답함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래간만에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번역을 만나게 되어서 독서가 모처럼 즐거웠다. 좋은 번역으로 원저작의 가치를 더욱 빛내 준 박홍식 교수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